

늦은 밤,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함소위와 신중위는 강대위의 부름으로 인해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다. 테이블을 두고 왼편엔 강대위가 그리고 오른편엔 신중위와 함소위가 앉아있다.

강대위 파트를 연기해주세요

강대위 : (발음이 살짝 꼬인다) 으어? 그워서 뇌가 구 때 연대장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귀야~ (숨을 크게 들이쉬 뒤 점점 큰 목소리로) 아 연대장님!! 제가!! 이 강대위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!!!! 하고 한 발 뺄 쏘니까?! 어!!

신중위 : (술을 많이 마셔 눈이 풀려있다) 크~ 역시 (박수를 치며) 우리 강대위님 다우십니다. 나이스 샷~

함소위: (그나마 멀쩡한 모습이다) 저희 그 연대 축구대회 얘기만 1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. (웃음)

강대위 : (머쓱하게 머리를 긁적이며) 에? 뉘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냐??

신중위 : (함소위를 바라보고, 손사래를 치며) 아이고~ 함 소위 그게 무슨 소리아~ 백번이라니(강대위님을 바라보며) 강대위님이 재밌고 새롭게 얘기해주셔서(짱 엄지를 치켜들며)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~

강대위 : (기분이 좋은 듯 씨익 웃는다)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거야~ 아니 난 말이야? 으어? 우리 가족들. 우리~ 전우들.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? 난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.

- 종락 -

강대위 : (게슴츠레한 눈으로, 엄지를 세우며) 이야~ 좋다!! 어우~ 우리 함소위 운동 열심히 하더니 효과가 있네~ 뻗뻗하게 웨이브를 하는데도 (흥분한 듯 일어나서 함소위의 웨이브를 따라 하는 듯한 모션을 취하면서) 몸매가 아주 그냥~

표정이 굳는 함 소위의 얼굴 클로즈업  
그렇게 몇 번의 술잔이 더 오고 간 뒤에 점점 수위가 강해진 별칙이 등장한다.

강대위 : (큰 목소리로) 이번엔 둘이 러브샷! 가자! 보기 좋잖아~ 너희 둘이 잘 되면 여행가라고 금요일, 월요일 휴가 줄게~, 싫어? 야,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좋은데, 싫으면 뭐... 일이나 열심히 하든가.. 내가 일 많이 하게 해줄게~

함소위 : (당황한 목소리) 네??